

고등교육기관 승격
교육과학기술부인가 정규 4년제 대학교 / 인터넷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로고 및 심볼의 의미는 고대 그리스 문자의 첫글자인 A를
형상화 한 모습으로 일류, 으뜸을 뜻하는 Ace와 성경에서
처음과 시작을 뜻하는 알파(Alpha)를 상징화한 것이다.
또한 신일(信一)의 人과 一의 조합으로서 21C 원격교육을
통하여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신일학원의 건학
이념을 표현한 것이다.

www.iscu.ac.kr (한국어 홈페이지)

www.iscu.ac.kr/eng (영어 홈페이지)

www.iscu.ac.kr/jap (일본어 홈페이지)

www.iscu.ac.kr/chi (중국어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3동 193번지 (우 142-700)
Tel 02,944,5000 Fax 02,980,2222

Vol.04

e세상을 움직이는 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e야기

2009

세계야 기다려라!

e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ISSN 2005-2049

서울사이버대학교 소식지 | 2009, Spring Vol.04 | <http://www.iscu.ac.kr>



2009학년도 입학식 치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삼천오백열한 분(3,511명)의 새 가족을 맞이하여 입학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학교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시는 김진영 명예 이사장님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밀어주시는 이세웅 이사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무총리를 역임하시고 현재 본교 이사로 계신 정원식 전 총리님과 오늘 축사를 해 주실 조완규 전 장관님을 비롯한 본교 이사님들과 박명수 총동창회장님,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연소 입학생인 18세의 정슬기군으로부터 70세의 김진아님을 비롯하여 전업주부, 직장인, 대기업 CEO, 군 장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이신 신·편입생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아울러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시기를 잡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시기를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제2의 인생도약을 위해 '적절한 시기'를 잡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는 것은 연령과 직업, 처한 여건을 초월하여 원대한 꿈을 가지고 배움의 문을 들어선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불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비옥한 토양 삼아 소망하시는 꿈을 튼튼하게 싹 틔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꽃씨'를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부디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한 가족이 되신 여러분의 입학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2월 28일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김 수 지

(간호학 박사)

“입학식에서 희망의 꽃씨 나눠”



희망의 꽃씨 (화분)

이번 입학식에서 본교 김수지 총장과 교수들은 입학생들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희망의 꽃씨 나눔’ 행사를 진행, 눈길을 끌었다. 총장을 비롯해 각 학과 교수들이 입학생 대표 20명에게 미니 화분을 직접 전달했으며, 그 밖에 입학식에 참석한 입학생 및 가족 800여 명 모두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허브 꽃씨도 전달했다.

지난 2000년 12월 개교를 한 본교는 올해 2,500명의 입학생 모집 목표를 훌쩍 넘겨 6,600여 명이 지원함으로써 약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모두 3,511명이 입학했다.

“사회 지도자를 향한 새로운 출발”

200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식이 2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신일캠퍼스 실내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개교 9년째를 맞는 본교는 이날 졸업생들에게 학사 졸업가운 위에 박사학위 수여식에서 걸치는 전공별 후드를 착용하도록 배려해 눈길을 끌었다.

1,568명의 졸업생, 학부모 등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수지 총장은 축사에서 “지식사회가 본격화하는 21세기는 평생학습과 교육이 필수”라며 “인생의 이모작, 삼모작을 위해 큰 뜻을 품고 본교에 오신 만큼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사회에 이바지 하는 멋진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묘연 학생처장과 사회를 맡은
영화배우 권오중(사회복지학과 2007년 졸업)▶



서울사이버대학교 200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 부쳐

모두 成就人이 됩시다.



정 원 식 |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前 국무총리 | 前 교육부 장관

본 대학 이사의 한사람으로서 오늘 학위를 수여받는 여러분에게 먼저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남다른 어려운 여건에서 이룩한 학업이기에 더욱 빛나는 업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등교육을 받은 교양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시작하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큰 획을 긋는 순간입니다. 영어로 졸업식을 Commencement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필업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회에 사회의 선배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오랫동안 간직해 온 삶의 좌표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여 “우리 모두 成就人이 됩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성취인이란 성취동기가 남달리 높은 사람을 뜻합니다. 성취동기가 높기 때문에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보다 훌륭하게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D. C. McClelland는 성취동기에 관한 장기간의 연구에 의해서 개인의 사회적 성공과 성취동기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한결을 더 나아가 한 나라의 발전을 뜻하는 국가발전지수와 국민들의 성취동기수준 사이에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토록 성취동기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발전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보면 남달리 성취동기가 높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의 정주영(鄭周永) 회장, 포항제철을 일으킨 박태준(朴泰俊) 회장, 농생물학자 우장춘(禹長春) 박사, 종교계 강원용(姜元龍) 목사, 문학의 박경리(朴景利) 여사 등은 모두 성취동기가 높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취동기가 높은 특성을 지닌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특징을 나타내는 것인가?

역시 McClelland의 연구결과를 원용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나타냅니다.

첫째,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과업 지향적(課業 指向的)이라는 특성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내적으로 품게 되는 동기를 알아보면 대별하여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에서 얻어지는 보상에 대하여 일차적인 관심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일을 보다 훌륭하게 달성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입니다. 전자는 지위 지향적이라고 하고 후자는 과업 지향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취인은 후자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성취인이라고 해서 과업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보상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업 지향적인 성취인은 보상보다도 그 과업자체에 일차적인 관심을 부여합니다.

어느 여름날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돌을 다듬고 있는 석공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나던 길손이 한 석공에게 다가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보면 몰라요? 밥벌이 하고 있지요!”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지금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경우 전자는 지위 지향적인 사람이며 후자는 과업 지향적인 성취인 이라고 하겠습니다. 훗날 후자의 석공은 이름있는 조각가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둘째, 성취인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아몰입(自我沒入)의 경지를 나타냅니다.

어떤 일을 하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투입하여 작은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낸다는 신념으로 전심전력 노력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것을 전력투구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운수에 맡기기보다 집중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아마비 백신의 발명자인 Jonas Salk는 그 백신을 발견하기까지 무려 2,000번 이상의 실험을 계속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침식을 잊어가며 집중적인 노력을 계속하여 인류사회에 큰 희망과 선물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은 무엇보다도 Salk박사의 성취동기가 가져다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성취인은 하는 일에서 적절한 모험에 의하여 보다 높은 성취를 이룩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삶은 어느 정도의 모험을 필요로 합니다. 날마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무사 안일한 삶의 태도는 성공을 약속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취인은 물론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실현성이 없는 황당한 모험을 하지도 않습니다. 성취인은 자신의 능력과 주어진 여건의 범위 안에서 모험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적절한 모험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손으로 던지는 화살을 가지고 벽에 걸려있는 과녁을 맞히는 게임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먼 거리에서 화살을 던져 과녁의 중심부를 맞추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사람이 10개의 화살을 가지고 과녁을 맞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열심히 게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그들의 태도를 분석해 보았더니 크게 나누어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학생들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화살을 던져서 안전하게 점수를 얻으려는 집단이었습니다. 반면에 한 부류의 학생들은 먼 거리에서 던지는 집단이었습니다. 과녁을 명중시키지 못함에도 요행수를 바라며 계속해서 먼 거리에서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한 두 개의 화살이 과녁의 외각이라도 맞게 되면 가까운 거리에서 명중시키는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집단에 비하여 다른 태도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제3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중간정도에서 살을 던져보고 결과가 좋으면 뒤로 한걸음 물러서서 던지는 모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조정하는 모험에 의해서 되도록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이 세 집단 중에서 제3의 집단은 성취동기가 높은 성취인의 특징을 보이는 집단임에 비하여 앞의 두 집단은 안일하게 게임을 하거나 요행수만을 바라는 집단입니다. 물론 이 두 집단은 제3의 집단에 비하여 성취동기가 낮은 집단입니다. 이렇게 제3의 집단은 황당하지 않고 자신에게 알맞은 모험을 하는 집단입니다. 성취인은 어떤 일을 하건 그 일을 보다 훌륭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성취인이 보이는 세 가지 특성, 즉 과업 지향적, 자아몰입, 적절한 모험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거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받으시는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SCU



서울사이버대학교 2009학년도 입학식에 부쳐

“현명한 선택, 그리고 고된 학업성취의 영광을 위한 출발을 축하하며”

조 완 규 | 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 | 前 서울대 총장 | 前 교육부 장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뜻 깊은 입학식에서 신일학원 가족을 대표하여 이사의 한 사람으로 축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을 통한 교육은 대학 교육의 새로운 형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장차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압니다.

2000년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국내 최초의 온라인 대학교로 출범하였고 그동안 많은 사이버대학들이 개설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기존 대학교의 부설 기관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또 여러 대학이 연합하여 운영하는 사이버대학도 있습니다.

사이버대학들은 서로 경쟁 속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사전에 여러 사이버대학을 검색하여 비교하였고 결국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다른 대학들과는 질에 있어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것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에 대하여 마음속으로부터 경의를 표하며 우리 대학교 또한 새로운 다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개교할 당시 평생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었지만 지난해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일반 대학으로 승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4년 과정을 마치면 일반 대학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대학으로 승격한 후 첫 해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07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사이버 대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같은 영광은 법인의 강한 육성 의지와 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개발한 교육콘텐츠, 그리고 국내외 명문대 출신의 우수한 교수진 등용,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과감한 투자 등 법인과 대학이 보여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전임교수 확보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7,200여 명 졸업생 중 500여 명이 국내외 명문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석·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대학 중 가장 높은 대학원 진학율입니다. 또한 재학생의 40%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금 수혜학생 수의 비율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우리 대학교 교수들은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며 온라인을 통한 어떤 질문이나 제안도 겸허히 수용하며 신속하고 자상하게 응답해준다는 점입니다.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서울캠퍼스 외에 경기, 강원, 대구, 호남, 부산, 연무대 등에 지역학습관을 설치하여, 오프라인의 학습활동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국 초완대학교, 러시아 국립 이르쿠츠크대학교,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등 세계의 명문대학들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였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4년 동안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제공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일반 대학의 경우 여러 동료와 같은 강의실에서 교수의 강의를 듣고 학우들이 서로 격려하고 조언도 주고받거나 노트를 빌리는 등 도움을 받으며 학업과정을 이수하지만, 온라인 체제의 수업에 있어서는 그 같은 도움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컴퓨터와 마주 앉아 모니터에 비친 영상을 대상으로 혼자 고독하게 학습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은 온라인교육 특성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 방식의 수업에 적응하기까지 겪는 고통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온라인을 통한 수업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또 한편 자신과의 싸움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처럼 이 과정은 여러분의 새로운 인간형성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학업을 끝내고 자신을 돌아보면, 4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고 또 만사에 자신(自信)이 생기며, 여기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은 일반대학에서 수학을 사람에 게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려운 학습과정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시고 한 분도 낙오하는 분 없이 4년 후 이곳에서 졸업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신일학원 이사의 한사람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출범 때부터 참여하여 그 성장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학교가 짧은 기간에 한국의 최고 명문 사이버대학으로 부상하는 데는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설립한 이세웅 이사장님의 강한 의지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세웅 이사장님은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예술의 전당” 이사장 등 인도적 사업, 특히 여건이 어려운 예술분야 육성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며 성심껏 후원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그간 몇몇 대학 법인의 이사장으로 봉직하면서 육영사업에도 큰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같은 이세웅 이사장님의 경륜과 철학이 결국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더욱 내실 있고 특성화된 선도적 온라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원식 총리나 제가 이세웅 이사장님의 투철한 철학에 감화되었기 때문에 이 재단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대학교가 우리나라 명문 온라인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온 힘을 다 하여 협력할 생각입니다.

이세웅 이사장님 이하 신일학원 임직원 여러분, 김수지 총장님, 그리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입생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입학축하드립니다. SCU



서울사이버대학교 200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 부쳐

브라이언 맥도널드 (Brian McDonald) EU 대사 축하

'유니버시티컬리지더블린' 법학박사
아일랜드 외무부 근무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 근무
주대만 유럽연합(EU) 경제무역사무소장
주한 EU대표부 대사

Dr. Lee Se-Ung, Chairman of the board, Dr. Kim Susi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distinguished guests, and ladies and gentlemen!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congratulate you on the fifth commencement ceremony. Seoul Cyber University presents itself as an innovative expression of Koreans' thirst for education-a drive which I believe has helped put this country in the top rung of advanced nations.

Today, the European Union and Korea stand as pillars of global trade and investment. We are two regions with shared values and goals. Our cooperation will be an essential component in dealing with the global issues of our time-climate change, ensuring healthy flows of trade and investment and ensuring peace and security. Peace cannot be promoted merely by military means alone. It comes ultimately from inclusion in the benefits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norms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a healthy economy requires social cohesion.

As you begin your studies and embark on your careers I hope that you can take away one point from my remarks-the importance of inclusion. Internationally, the European Union has managed to guarantee peace in our region and around the world by sharing the benefits of our own peace and security with less stable countries. Internally, our societies have achieved cohesion by ensuring a basic social safety net that means all citizens can enjoy the benefits of society.

Seoul Cyber University is at its base about the sharing of education and the granting opportunities to all citizens. I urge you to take this value of strengthening yourself by including others in your good fortune as you progress in your career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wish you great success. 



" 학생 복지부문에 최우선 과제를 두겠습니다."

학생회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어떤 점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7대와 8대 총학생회에서 풍성한 봉사경험을 토대로 그동안 접했던 불편한 사안들의 개선을 약속한 공약에 많은 학우들께서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학생회 활동을 할 계획입니까?

공약 하나 하나를 실천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특히 학우복지 부분(수도권 병원과의 진료비 할인협약, 동아리활동 지원, 웹진 활성화, 강의내용 오류 정정, 지역모임 활성화)에 최우선의 과제를 두려 합니다. 그리고 총학생회 사무실을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하여 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학우들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이버대학이 생긴 것은 10년이 채 안 되었고 그 동안 많은 사이버대학들이 새롭게 개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이버대학과 비교해서 서울사이버대학만의 특성이나 비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이버대학으로서 캠퍼스가 있다는 점, 순수한 사이버대학으로서 제일 먼저 출발하여 인지도 면에서 앞서 간다는 점, 학교 측의 꾸준한 지원과 노력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특별히 다릅니다. 여기에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사이버대학에 대해 매우 호의적으로 관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대학의 잠재된 비전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장으로 활동함에 있어 학교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학우들의 학업 중도포기를 막고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총학생회와 같이 학우들의 동아리 모임 등 학업 이외의 오프라인 모임에 적극 지원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안이 있지만 9대 총학에서 공약사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SCU

" 퇴근 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창시절을 회상할 때,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학년 때 당시 정책학부(현 사회과학부) 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구축했던 일입니다. 그때 초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명수 회장을 도와 서울과 부산을 왕래하며 학교를 선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외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1대 김명수 총장님과 2대 신황호 총장님을 찾아뵙고 학업생활과 총학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성화시켰던 것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부산에서 직장(CJ제일제당 공무원경팀)에 다니시고 부산 시민경찰로도 활동하시고 계시죠? 입학에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어요.

생명력이 있는 것 중에 가장 환경의 적응력이 빠른 생명체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시절 퇴근 후 항상 피곤에 지쳐 있었던 제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한 것은 맨발로 가시밭길을 걷는 건 아닐까 고민도 많이 했었죠. 입학 당시는 회사 증설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했던 시절이었죠. 퇴근을 하면 피곤에 지쳐 손가락을

입에 물고 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나만의 비전을 찾아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상황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알게 되어 입학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들과 학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4년 동안 함께 했던 교수님, 교정, 그리고 학우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졸업 후에도 동문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만남이 더 좋은 관계로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우정을 함께 나누었던 동문들, 법무행정학과 학우님들께 감사와 우정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선정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SCU



주간동아 기사특집 : 2009. 1. 13 669호 (P.42-43)



하늘에서 받은 석사학위

고려대에서 유교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고(故) 신천삼 학우,

서울사이버대학교 국제무역물류학과 졸업(O2학번)

지난해 12월 13일 고려대에서는 ‘심사자 없는 논문심사’가 있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논문의 주인공 고(故) 신천삼 동문은 지난해 11월 7일 골수이형성증후군과 간암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논문 심사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그가 어떻게 석사학위를 받았을까.

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와 삼성전자를 다녔고, 무역회사와 패스트푸드점, 통신네트워크회사 등을 운영했다. 부인 김씨의 말을 빌리면 ‘앞만 보고 달린 인생’이었다.

40여 년을 일에 묻혀산 그는 2002년 **서울사이버대학교 국제무역물류학과에 입학**해 만학도가 됐다. 내친 김에 2006년에는 고려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잇지 못한 아쉬움도 커다란 동기가 됐다. 그런 그에게 시련이 왔다. 2008년 4월 논문심사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종합시험에 낙방한 것. 논문 심사도 한 학기 연기해야 했다. 코피가 계속 흘러 제대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0월 21일 종합시험에 합격했고 10월 25일에는 논문 세미나도 거쳤으나 병마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평소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논문 작업을 하던 그였기에 직원들도, 가족들도 논문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생전에 신씨와 함께 논문 자료를 찾았던 동기생 이병한씨는 그의 논문에 대한 열정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학교 측에 고인의 사정을 알렸고, 유가족에게는 신씨의 논문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 다행히 신씨의 컴퓨터 속에는 본론 일부와 결론이 미완성인 논문이 있었다. 이 씨는 고인의 논문을 마무리하기 위해 자료를 찾는 등 논문 준비를 도왔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책상 서랍에서 깨알 같은 글씨의 논문 나머지 부분을 찾아내 신씨의 아들이 워드작업으로 논문을 마무리했다.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논문 심사를 받았다.

담당교수는 신씨의 논문을 “**열심히 노력한 논문**”이라고 평가했다. 유가족은 12월 26일 신씨의 49세 때 111페이지 분량의 석사학위 논문을 받치며 그의 소원을 풀어 드렸다. SCU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임교수소개

학문적 업적 및 실무경험을 겸비한 2009학년도 1학기 신임교수를 소개합니다.

박태정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세계속의 명문,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사회복지학과

- 경북대학교 문학박사
- 사회복지정책 전공
- 대통령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 조사관
- 경기복지미래재단 연구원

김미주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일원이 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앞으로 사이버학습의 교수자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하고,
신설된 보건행정학과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학과

- 서울대학교 보건학박사
- 보건정책관리 전공
- 일본 와세다대학 인간종합연구센터 객원연구원
-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 중앙고시교육원 교육기획위원
- 한국학교보건학회 간사
- 현) 일본 미시간네트(MichiganNet)회원, 東久留米市치매서포터

김순정 교수



"이번 학기부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일원이 된 발레리나 김순정입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무대와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레인재들을 발굴해 키워나감과 동시에 교양 발레강좌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건강과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양학부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석사
- 발레교육전공
- 러시아 기치스(GITIS) 무대예술아카데미 발레지도자과정 수료
- 러시아 모스크바 스타니슬라브스키발레단 연수
- 국립발레단 주역무용수
- 현) 한국발레협회 상임이사
- 현)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

교목 백인섭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게 된 백인섭 목사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캐나다 장로교에서 배우고 경험한 소중한 목회 경험들을 가지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분들과,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교직원분들을 성심껏 섬기겠습니다."

교양학부

- University of Toronto Knox College
- 목회학 석사
-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교육목사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School of Theology, Spiritual Direction, Master of Theology 과정
-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Whitewood Knox Moosomin St. Andrew Church, Saskatchewan, Intern Minister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미8군 사령관 조셉 휠 중장, 이세웅 이사장, 신홍순 예술의전당 사장, 국립발레단 최태지 예술감독, 김수지 총장, 박영수 총동문회장, 정준구 총학생회장, 이상영 차기 총학생회장 당선자, 김주원 수석무용수 외 국립발레단원들

일반종합대학 승격기념 문화의 날 행사

2008년 10월 31일자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일반종합 대학교로 승격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재학생과 졸업생, 학교 관계자 등 1,800명을 초청해 공연을 관람하는 문화 행사를 가졌다. 이번엔 관람한 공연은 예술의전당과 국립발레단이 선보이는 <호두까기 인형>이며, 발레공연을 관람한 후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불우이웃을 돕는 나눔 송년회도 가졌다.



▲ 김수지 서울사이버대 총장(왼쪽 여섯 번째)과 총학생회 임원진들이 공연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m7 창간 5주년 기념 지하철 에피소드 공모전

문화일보 AM7 창간 5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제4회 지하철·전철 에피소드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2월 19일 오전 11시 서울사이버대 신일캠퍼스에서 열렸다. 서울사이버대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2,031편의 작품이 응모해 총 21편이 입상했다.

◀ AM7 창간 5주년 기념 지하철·전철 에피소드공모전 시상식에서 이병규 문화일보 사장(앞줄 왼쪽 네 번째), 이세웅 서울사이버대 이사장(앞줄 맨 왼쪽), 김수지 서울사이버대 총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등과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이버대학 중 첫 등록금 동결 결정 (2009)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이버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2009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수지 총장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사이버대학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자 많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립암센터 위탁교육을 위한 협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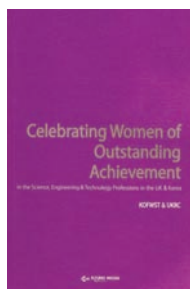


2009년 2월 26일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회의실에서 본교와 국립암센터가 위탁교육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영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KOFWST & UKRC)가 공동 출판한

Celebrating Women of Outstanding Achievement
한역판 : 「내일의 '마리퀴리'를 기다리며」
김수지 총장 소개

한국최초의 간호학 박사인 김수지 총장은 정신과학 및 정신건강 분야에서 실무 연구 및 이론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재활간호 분야에서의 업적 또한 지대하다고 소개했다.



교육기관분야 우수상 수상

서울사이버대학교 웹사이트가 웹어워드위원회가 주최하는 웹어워드코리아 2008 대한민국 웹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교육기관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러닝 학습수기 공모전 시상식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해 11월 “SCU 이러닝 학습법 수기 공모전”을 실시, 2월 28일 시상식과 함께 발표회를 가졌다. 공모전의 수상자는 대상에 배정은(사회복지학과)학우, 최우수상에 김중우(금융보험학과)학우, 우수상에 차숙영(금융보험학과)학우가 선정됐다.

2008학년도 2학기 우수교원 시상식 열려

외래교원을 대상으로 한 (2008학년도 2학기 우수교원) 시상식이 열려 군경상담학과 유명덕 교수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새로운 도전(New Challenge)!

실직자 대상 온라인 무료 실무강좌

서울사이버대는 최근 급증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도전(New Challenge) 프로그램'을 마련해 5개 과목의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서울사이버대, 美 존스홉킨스대 공동자격증 과정 운영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미국 최고 온라인 명문대학인 존스홉킨스대학교(JHU)와 손잡고 창업지도사(Entrepreneurship), 프로젝트 관리사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 PMP)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수자에게는 서울사이버대학교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JHU)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공동자격증이 수여된다.

■ 과정상담 (02-944-5286) 교수상담 (02-944-5061)



서울사이버대 헌혈증서 단체기증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09년 1월 19일 본교 캠퍼스에서 전체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불황에 '사이버대학' 인기

1차 지원자 작년 대비 20% 증가,
2차 특별 모집도 높은 경쟁률로 마감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김수지)는 2009학년도 상반기 1차 신입생 모집에서 작년 대비 지원율 20%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학사편입 전형, 산업체 위탁전형 등 정원 외 전형 위주로 2차 특별 모집도 성공적으로 마감하였다.

여성소비자가 뽑은 최고의 사이버대학 부문 대상 수상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여성신문 주최, 제 11회 여성 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최고의 사이버대학교로 선정되었다

한국 대표 발레리나 김주원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



▲ 한국 대표 발레리나 김주원(오른쪽)과 김지영.

한국 대표 발레리나 김주원(32)과 김지영(31)은 한국발레협회(1989년) 주최 콩쿠르에서 공동 금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김주원(32)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논문 및 저서 발표



김수지 총장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지침서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 CUP, 2009년, (김수지 외 저)



가족상담학과 이남옥 교수

『부부, 가깝고도 먼 동반자』, 이너북스, 2009년,
(Schindler 외 저, 이남옥 번역)



노인복지학과 강인 교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여성독거노인의 삶의 질”,
『한국가족관계학회』, 2008년, (강인 외 2인 공동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 중노년 성인들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2009년, 제13권 제4호. (강인 외 2인 공동연구)
『노인과 문화』, 현우사, 2008년, (강인 외 공저)



교양학부 박종선 교수

『사이버학습의 이해(Understanding for e-Learning Study)』,
교육과학사, 2009년, (박종선 저)
“The Study on modified SCORM standard for the optimal design of goal driven personalized e-learning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Ubiquitous Computing and Internationalization 제1권 제2호, (P.23~30)



보건행정학과 김미주 교수

『복지국가의 고평자 주거정책』, 공동체출판사, 2008년,
(김미주 외 3인 공저)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행정학회지』, 2008년, 제18권 제4호.



법무행정학과 나승성 교수

『전자거래법』, 한국학술정보, 2008년, (나승성 저)
『증권거래법 개설』, 한국학술정보, 2008년, (나승성 저)
『은행법 개설』, 한국학술정보, 2008년, (나승성 저)
『상법요론』, 한국학술정보, 2009년, (나승성 저)
『법학개론』, 한국학술정보, 2009년, (나승성 저)



서울사이버대학교 소식지_Vol.04 Spring 2009

발행처 서울사이버대학교
발행인 김수지

발행일 2009년 5월
출력 인쇄 한솔PNS주식회사

기획/편집디자인

편집주간 :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교수
편집감수 : 고윤승교수, 김영민교수, 권기남교수, 이성태교수
편집국 : 출판부 손현진 joynlife@iscu.ac.kr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02-944-5216)
(주)세인커뮤니케이션즈 (02-2024-2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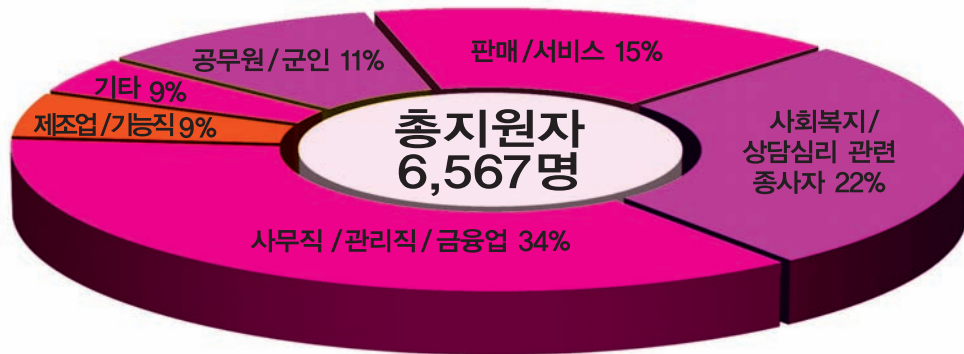
입학을 축하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육도 전략입니다. 불황속에서도 대학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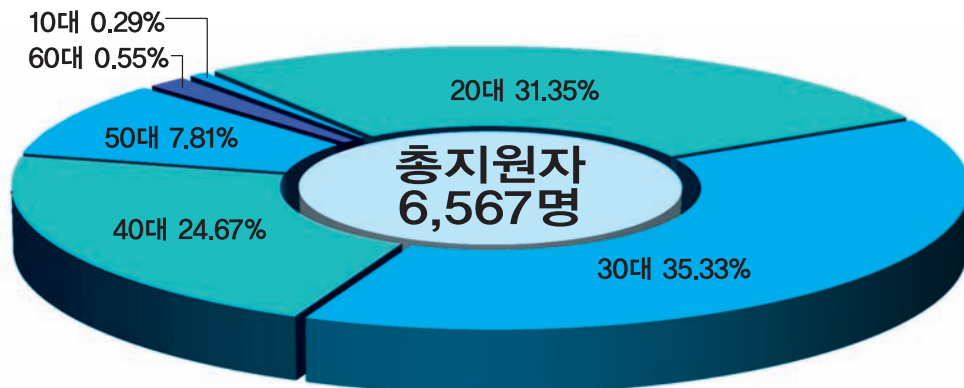
Seoul Cyber University offers a 21st century method of learning in the most economical way.

온라인(On-line) 교육의 명문!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정원 2,500명



【직업별 분포】



【연령별 분포】

Tel 02-944-5000
www.iscu.ac.kr

3월 입학 축하 광고 진행 일간지(2009년도)

매체 / 집행일	조선일보 / 3월 2일(월)	문화일보 / 3월 2일(월)	매일경제 / 3월 2일(월)	경향신문 / 3월 2일(월)
	중앙일보 / 3월 3일(화)	한겨레신문 / 3월 3일(화)	서울신문 / 3월 3일(화)	내일신문 / 3월 3일(화)
	국민일보 / 3월 3일(화)	한국일보 / 3월 4일(수)	세계일보 / 3월 4일(수)	코리아타임즈 / 3월 4일(수)